‘신인왕 1순위’ 원태인 지방 팜의 성공 모델로

삼성 원태인

KBO는 19일 제 4차 이사회를 통해 전면드래프트 부활 소식을 알렸다. 리그 전력 평준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역 연고에 상관없는 10개 구단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서울 지역 팜이 타 지역에 비해 훌륭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전면 드래프트 부활 배경에는 좋은 자원이 많은 서울 지역 팜을 지방 팀들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불이익을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전력 평준화만을 위한 전면 드래프트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서울 지역 팜에만 ‘선택’이 몰리는 경우, 지역 팜의 퇴보 가능성은 높아진다. 전학과 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운영이 어려운 지역 중·고교 야구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프로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는 자원들이 주로 서울 출신들이기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질 확률은 더욱 더 높아 보인다. 2017년과 2018년 신인왕의 주인공인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21)와 KT 위즈 강백호(20)는 휘문고등학교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울 팜 출신이다. 프로 1년 차 때 곧바로 팀 주전으로 활약하는 소위 ‘대박’들이 연달아 수도권 구단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 팜의 상대적 우위가 점점 더 프로의 세계에서 입증되어 가는 이때, 단 한 명의 지방 팜 출신 신인이 올해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다. 바로 대구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성 라이온즈 1차지명을 받은 원태인(19)이다.

원태인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발보직을 수행했다. 전반기 성적은 19경기 3승 5패 2홀드 평균자책점 2.86이다. 외국인투수의 미비한 활약 속에서도 삼성이 ‘버티기’ 작전을 쓸 수 있었던 데에는 원태인의 기여도가 컸다. 성적으로 보면 현재 가장 유력한 신인왕 후보다. LG 트윈스 정우영(20·서울고 졸)과의 경쟁이 유력한 가운데 후반기 성적에 따라 왕관의 최종 향방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순수 고졸 투수 신인왕은 2007년 임태훈이 마지막이었다. 지방 팜 출신인 원태인이 12년 만에 다시 역사를 만들 수 있을 지 후반기 활약에 벌써부터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강정호, 3년 만에 두 자릿수 홈런

강정호(32·피츠버그)가 23일(한국시간)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전에서 3-6으로 뒤진 연장 10회 무사 2루,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포를 폭발했다. 시즌 10호 아치. 이 홈런으로 강정호는 2016년에 이어 3년 만에 두 자릿수 홈런 고지를 밟았다. 2015년 피츠버그에 입단한 그는 첫해 15홈런, 2016년 21홈런으로 연착륙했다. 하지만 2016년 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2017년을 통째로 날렸다. 지난해 복귀해 3경기에 나섰던 그는 올해 낮은 타율(0.184)로 고전하고 있지만 장타력만큼은 변함없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아마추어 지도자로 인생 2막…‘율판왕’ 김사율을 만나다

“입 야구는 거부한다” 김사율의 ‘참 베이스볼’

김사율은 롯데와 KT를 거치며 20년간 프로에서 활약했다. 화려했던 한 시대를 뒤로한 그는 이제 야구 아카데미 원장으로 변신했다. 프로 입단을 지망하는 이들부터 사회인 야구인까지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노하우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포츠동아DB

“아카데미 개업…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 KT서 베테랑 역할…그때 경험 큰 도움 2012년 롯데서 34세이브 기록 못 잊어 야구든 인성이든 참된 지도 하고 싶다”

본지 ‘와일드볼TV’ 프로젝트 동참도

‘끝판왕’. KBO리그와 일본 프로야구를 평정한 뒤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했던 오승환(37·콜로라도 로키스)의 별명이다. 150km 이상의 ‘돌직구’로 무장한 오승환은 한국야구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꼽힌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묵묵히 20년간 프로 유니폼을 입고 활약한 이가 있다. 34세이브로 롯데 자이언츠의 단일 시즌 세이브 최다 신기록을 세웠던 김사율(39)이 그 주인공이다. 팬들은 그를 일컬어 ‘율판왕’이라고 부른다. 대기록은 남기지 못했지만 마지막 팀 KT 위즈에서 은퇴식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그의 가치가 돋보인다.

유니폼을 벗은 그는 경기도 수원에 ‘참 베이스볼’이라는 야구 아카데미를 열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아마추어 야구선수부터 일반 사회인 야구인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배움의 장’을 열었다. ‘진심은 통 한다’는 것이 그의 신조다. 그런 그를 스포츠동아가 만났다.

●화려했던 2012년의 김사율

-멋진 은퇴식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고했다. 여러 순간이 생각났을 텐데.

“아무래도 프로 첫 등판과 마지막 등판이 생각난다. 하지만 가장 빛났던 순간은 2012년 50경기 등판 34세이브, 평균자책점 2.98)이다. 당시 롯데 구단 세이브 신기록이었다. (손)승락이가 2017년 37세이브를 기록하며 기록을 깼지만, 그 때를 잊지 못할 것 같다.”

-당시 투수 출신으로 드물게도 롯데 주장을 맡았다.

“손민한, 염종석 선배 정도 되는 투수만 롯데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왔다. 성적도 성적인데 팀을 아우르는 자리 아닌가. 얼떨떨했지만 오히려 성적에는 도움이 됐다. 개인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팀만 생각했다. 그게 좋게 작용했다. 주장일 때도, 신생팀 KT로 이적했을 때도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였다. 지금도 그 경험은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KT에서도 4년간 뛰며 신생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참 때 배운 게 더 많다. 내가 생각하는 베테랑은 배움의 시간인 것 같다. 내가 야구를 잘할 때는 잘하는 대로, 못할 때는 못하는 대로 얻어가는 게 많다.”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가 목표”

-유니폼을 벗은 지 8개월, 아카데미를 개업한지도 반년이 되어간다.

“아직도 익숙하진 않다. 아마추어 시절을 합치면 30년 동안 유니폼을 입었다. 매일 유니폼을 입고 팀 훈련을 받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는 않다. 선수 때는 내가 최우선이었다. 운동이나 몸 관리 모두 내 기준대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프로를 지망하는 이들부터 야구를 좋아하는 일반인들까지 모두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많이 배운다.”

-은퇴 선수들에게는 여러 행선지가 있다. 아카데미를 연 이유가 궁금하다.

“대부분의 은퇴 선수들에게는 프로에서 지도자를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시야를 바꿔보고 싶었다. 아마추어에서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것은 프로 코칭과 아예 다른 영역이다. 밑바닥부터 공부하며 내공을 쌓고 싶다. 궁극적인 꿈은 지도자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선수 시절의 경력만을 내밀며 코치로 변신하고 싶지는 않았다.”

●코치 김사율, 최대 난관에 부딪히다?

최근 스포츠동아 취재 기자들은 한 가지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입 야구들의 몸 야구 도전기’로 명명한, 야구 체험이다.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아온 이들이 사회인 야구계를 평정하기 위해 명사들을 찾아가 꾸준히 레슨을 받는 내용이다. 투수 파트는 김사율이 담당한다.

-아카데미 이름이 참 베이스볼이다. ‘사율 아카데미’ 등 이름을 넣지 않았는데.

“진정성, 참되다는 의미다. 일련의 사건으로 야구 아카데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는 건 알고 있다. 참 베이스볼이라는 이름을 내걸며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참된 지도를 하고 싶다. 야구든 인성이든 모두.”

-와일드볼TV는 120~130km를 목표로 시작됐다. 과연 일반인이 130km를 던질 수 있을까?

“우리 때 스피드 건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속도를 던진 것 같다. 정말 어려운 도전일 것이다. 특히 투수는 오랜 시간 반복적인 과정 숙달이 필요하다. 신동이 나오기 어렵다. 무모한 도전이다.”

스포츠동아와 김사율의 만남은 네이버TV, 유튜브, 동아닷컴 VODA 등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와일드볼TV’ 검색으로 만나볼 수 있다.

‘율판왕’ 김사율(앞쪽)은 ‘참 베이스볼’ 야구 아카데미 원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와일드볼TV’ 촬영을 하며 스포츠동아 이경호 기자를 지도 중인 김사율.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SK, 꿈의 100승 콜? 린드블럼, MVP 콜?

‘승률 0.674’ SK, 역대 시즌 최다승 도전
린드블럼도 역대 5번째 외인 MVP 기대

후반기 주목할 만한 팀과 선수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가 26일 재개된다. 일주일간의 올스타 브레이크를 보약 삼아 모두가 함께 다시 뛴다. 한층 더 치열해질 순위경쟁과 개인타이틀의 향방이 관심을 모은다. 후반기 주목할 팀과 인물을 둘러본다.

●SK, 시즌 최다승 넘어설까?

SK 와이번스는 전반기 96경기에서 64승1무31패, 승률 0.674로 1위를 질주했다. 2위 키움 히어로즈(59승39패)와는 6.5경기차, 3위 두산 베어스(57승40패)와는 8경기차다.

큰 이변이 없는 한 SK의 페넌트레이스 우승이 유력하다. SK의 1위 확정 시점과 더불어 최종 승수에 이목이 집중될 법하다.

역대 시즌 최다승은 KBO리그가 10개 구단 체제로 확대된 이듬해인 2016년 두산이 작성한 93승(1무50패·승률 0.650)이다. SK가 남은 48경기에서 30승을 거두면 된다. 무승부를 배제할 경우 승률 0.625가 필요하다. 아울러 역대 최고승률은 전·후기 리그로 나뉜 시절까지 포함하면 1985년 삼성 라이온즈의 0.706(77승1무32패), 이를 제외하면 2000년 현대 유니콘스의 0.695(91승2무40패)다.

●2년 만에 다시 3할대 승률 2개 팀?

올 시즌 전반기에는 상·하위권의 전력 편차가 유독 컸다. 결국 한화 이글스(35승 59패·승률 0.372)와 롯데 자이언츠(34승 2무58패·승률 0.370)는 나란히 승률 3할대의 부진 속에 게임차 없는 9위, 10위로 주저앉았다. 후반기에는 두 팀의 탈 꼴찌 경쟁이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반기와 같은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함께 3할대 승률로 시즌을 마칠 우려도 높다.

역대로 복수의 팀이 승률 3할대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보인 시즌은 총 9차례(1982·1986·1988·1990·1993·2000·2008·2010·2017년)였다. 한화와 롯데는 자칫 10번째 ‘동반 굴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린드블럼, 3년 만에 다시 외인 MVP?

두산 조쉬 린드블럼은 전반기 20경기에서 15승1패, 평균자책점(ERA) 2.01, 삼진 126개를 기록했다. 다승, 승률(0.938), ERA, 삼진 모두 1위다. 2011년 윤석민(KIA 타이거즈) 이후 8년 만에 역대 5번째 투수 4관왕으로 등극한다면 린드블럼의 시즌 최우수선수(MVP) 수상은 확실시된다. 3개 부문 이상만 거머쥐어도 자격은 충분하다. 린드블럼이 시즌 MVP로 우뚝 선다면 외국인선수로는 역대 5번째 주인공이 된다. 2016년 더스틴 니퍼트(두산) 이후로는 3년만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